

서론

결혼관은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며, 그 변화는 다양하다. 기성세대에게 결혼이 가족을 구성하는 당연한 생애과정의 하나였다면,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개인의 선택 또는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삶의 경험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혼관의 변화는 비혼, 만혼, 결혼기피 등의 최근 사회현상과 연결되며,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등과 맞물려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전국 출산력 조사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20~44세 미혼 남녀 2,383명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의 9.9%, 미혼여성의 13.9%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가 22.2%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 남성은 경제적인 요인(결혼 생활비용 부담, 낮은 소득, 실업 상태 등), 미혼 여성은 사회문화적 요인(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길 희망, 상대방 구속 싫어, 결혼제도가 남편집안 중심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인식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일 남녀의 생애미혼율¹⁾ 추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모두 2000년 이후 생애미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남성의 경우 5.8%, 한국 여성의 경우 2.8%로 일본(남성 20.1%, 여성 10.6%)보다는 낮으나 최근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조성호, 변수정, 2014).

이처럼 한국 미혼 남녀들의 결혼관이 달라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와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비혼 남녀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미혼남녀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한 양적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양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결혼의향이 더 낮았고, 교육수준과 연령은 남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9; 김중백, 2013; 김혜영, 선보영, 김상돈, 2010; 이삼식 외, 2005; 이삼식 외, 2015; 이삼식, 최효진, 2010; 조성호, 변수정, 2014). 둘째,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가족가치관의 동조가 높을수록, 원가족 내의 분위기가 안정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예리, 2009; 원아름, 박정운, 2016; 이삼식, 2006; 조호리, 2009; 진미정, 정혜은, 2010; 최새은, 옥선화, 2003; 하보란, 2012; 홍은영, 2011). 셋째,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경제적 요인은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고선강, 여성연, 2013; 이삼식 외, 2005; 이창순, 2012). 특히 남성은 취업상태가 전제가 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했느냐와 같은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은 경제적 자원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홍준, 현성민, 2010). 넷째, 기타 변인에 대한 연구로서 성 및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여성에게는 결혼의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정석, 2006), 높은 결혼비용과 주거비용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이 많을수록 결

1) 50세가 되었을 때의 미혼율로, 45~49세의 미혼율과 50~54세의 미혼율을 평균한 수치임.

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선영, 박주희, 2014).

앞서 살펴본 양적 연구들은 대학생과 결혼 적령기 성인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해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사실들을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결혼 하지 않으려는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어진 응답 범주 중에서 선택하는 단편적인 응답(‘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혼할 필요를 모르겠어서’)을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비혼 남녀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비혼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한 질적 연구들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대상에 있어 그 용어는 다양한데, ‘독신’, ‘만혼자’, ‘미혼’, ‘비혼’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선 ‘비혼’이라는 용어는 여성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먼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미혼’ 또는 ‘독신’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혼’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는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심경미, 2003). 본 연구에서 비혼(never-married)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으면서 ‘결혼하지 않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비혼의 동기나 심리적인 특성을 밝히고자 했던 국내의 질적 연구들은 크게 독신과 결혼의향이 불분명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첫째, 독신의 동기를 밝히고자 했던 주요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김경원(2005)의 연구에서

는 출생순위,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적 문제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일에 대한 성취감, 독신생활의 편리함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동기로 나타났다. 장현숙(2002)의 연구에서는 독신의 삶을 통해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여성은 가족가치관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결혼의향이 불분명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미혼남녀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주요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헌력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류연희(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 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와 어머니의 억압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중인 4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도현(2015)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결혼의 주체가 자신이 되지 못하여 결혼의 의미와 동기가 불투명하고 그로 인해 결혼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남성 만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재원(2011)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며 이들에게 결혼의 의미는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것이었고 자식이나 부모 부양과 같은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을 유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질적 연구들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라는 점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대상들이 매우 제한적이며, 선정된 대상자의 비혼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심리 내적 특성에 집중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한계점

에서 착안하여 장기적으로 결혼할 의향이 없는 남녀의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비혼의 선택 동기

비혼의 선택적 요인을 중심으로 Stein(1981)은 소극적(pushes) 요인과 적극적(pulls) 요인으로 그 유형을 나누었다. 비혼을 선호하지 않지만 제약에 얽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소극적 비혼 요인, 비혼의 장점 또는 긍정적인 측면에 이끌려서 한 선택을 적극적 비혼 요인이라고 하였다(강은영, 2010; 재인용).

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성격심리학에서는 접근성향과 회피성향의 개인차 연구가 오래도록 주목받아 왔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Gray의 강화민감이론이다(윤병수, 2007). Gray(1990)는 행동의 기저에는 세 가지 동기체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는 행동활동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BAS는 조건화된 쾌 자극(appetitive stimulus)들에 민감한 것으로 가정되며, 이는 접근행동 및 긍정적인 감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BIS는 조건화된 혐오 자극들에 민감한 것으로 가정되며 회피행동 및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BIS는 불안과 관련된 단서에 대한 반응의 근거가 되는데, 불안 상황 단서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 회피체계의 민감성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불안 경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피·접근 성향이 기질과 성격특성, 광범위한 정서경험 경향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주장(Carver & White, 1994;

Pickering, Corr, & Gray, 1999; 이선미, 박기환, 2013; 재인용)에 대해 국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김교현, 김원식, 2001; 윤병수, 2007; 조명현, 2009; 이선미, 박기환, 2013). 비혼 선택 역시 동기체계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혼 선택이 행동활성화적 측면인지, 행동억제적 측면인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들의 비혼 선택에 있어 동기적인 측면이 어떠한가를 연구의 결과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은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사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이다. 때문에 개인의 타고난 성향, 원가족의 특성, 이전에 맺어왔던 관계경험에서 비롯된 대인관계적 특성 등이 결혼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특성

Rovers(2004)는 개인이 가진 현재의 자아상, 가치관, 행동,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양상은 원가족 경험의 맥락 내에 있으며, 원가족의 초기경험은 일생을 통해 다양한 정도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Bowen(1978)은 가족 및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은 상호 관련이 크고, 패턴 및 반복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은 대인관계 패턴이 대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예측하며, 그 결과 배우자와 중요 인물들과의 현재 관계에서 개별

성과 연합성의 수준이 재현된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원가족과의 경험은 모든 대인관계의 기저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친밀감(연합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율성(개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 정도와도 관련된다.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특성으로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것은 부모의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경험이 자녀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노미화, 이인수, 2011; 류연희, 2007; 백영수, 2002; 이지은, 1996; 정윤경, 최지현, 2010; 조은수, 2007; 조호리, 2009).

Cunningham과 Thornton(2006)은 가족이나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은 원가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이지은(1996)은 청년기 자녀는 부모의 결혼관계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결혼과 연결시켜 해석·처리 한다고 하였으며, 조은수(2007)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높게 지각할 경우 자녀는 긍정적인 결혼관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정윤경과 최지현(2010)은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결혼관을 형성하고 부부관계의 패턴을 학습한다고 하였다. 조호리(2009)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한 경우 자녀들은 이를 일반적 결혼생활로 정형화하거나, 자신의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결혼을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원가족 내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인식할 때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반면, 불행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이를 자신의 결혼생활로 연결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결혼과 연결하여 해석·처리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개인은 결혼에 대한 입장을 저마다 다르게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특성

Kerr와 Bowen(1988)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체계는 개별성과 연합성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움직여지며 인간관계는 연결과 독립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개별성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생물학적 힘, 연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연결하면서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학적 힘을 말한다.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관련을 맺기도 하고 독립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독립적 삶의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화가 잘 된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어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미분화된 사람이라고 부른다.

Bowen(1978)은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개인의 불안수준이 높고, 낭만적 관계의 친밀감이 낮게 나타나며, 친밀한 관계에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졌다.

차정화와 전영주(2002)는 원가족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불안수준이 낮고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은영(2002)은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

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정미(2006)는 자기분화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나보영과 정혜정(2008)은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친밀한 사람과 융합된 관계를 나타내거나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애착이론, 대상관계이론을 토대로 대인관계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애착 유형이 대인관계 및 친밀감 형성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인관계적 특성이 결혼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친밀한 관계의 두려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김현실(2010)은 33-44세 싱글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가족에서 자기분화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면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는 결혼지연 또는 결혼기피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반석우(201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밀한 관계의 두려움이 높을수록 결혼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인관계에서 개별성과 연합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Stein(1981)의 주장에 따라 적극적-소극적 비

혼 유형으로 구별한다면, 결혼의 제약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피하고자 하는 선택은 일종의 기피, 회피라고 간주해볼 수 있다. 비혼의 선택과정에서 고려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이들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을 관찰하거나 평가한 것을 자신과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대인관계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혼의 선택에 대해 최근 수용-전념치료(ACT)의 핵심개념인 경험적 회피와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 회피는 원치 않는 사적인 경험들(예, 정서, 사고, 신체감각, 기억, 상상 등)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경험들과 접촉하지 않으려 하며, 그러한 경험들을 통제하거나 그것들로부터 도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S. C. Hayes, Strosahl, & Wilson, 1999). Forsyth와 Eifert(2005)는 이러한 경험적 회피의 주된 기능은 고통스러운 경험의 영향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시키려는 이유에서 시도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회피는 오히려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경험적 회피는 각종 불안 증상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윤성민, 신희천, 2007; 이정은, 조용래, 2007; 조영미, 이희경, 2013; 조용래, 채숙희, 최연숙, 2009; 허재홍, 2008). 특히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관련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영미와 이희경(2013)은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기본 심리적 욕구가 만족될 가능성이 낮고, 기본 심리적 욕구가 불만족 될수록 경험적 회피 수준은 높아져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은영과 이지은(2015)은 불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회피, 부정 등의 부정적인 대처전략(경험적 회피)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유정(2013)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가진 사람은 경험적 회피의 변인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경기웅과 장성숙(2015)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회피를 주로 시도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험적 회피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겪게 됨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족 특성, 대인관계적 특성, 개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혼을 선택한 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그 선택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특성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이들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이들이 결혼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 있어 영향을 준 관계적 경험은 어떠한가? 넷째, 이들이 결혼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및 모집 방법

이 연구의 참여자는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만 25세-39세)의 남·여로서 장기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9명이다. 결혼에 대

한 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들을 표집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무작위 표집이 아닌 눈덩이식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주변의 아는 대상을 먼저 추천받아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사람에게서 다른 대상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을 결정하였다. 추천이 더 이상 없을 때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연구 참여자 4의 경우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간단한 면접 후 참여하게 되었다.

표집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연구 참여자에게 다른 대상을 추천받는 과정 중에 결혼에 대한 의향이 없다고 하지만 다소 미온적인 태도가 있는 경우 추천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즉, 당장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은 발견하기 쉬우나 장기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기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향이 없음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들의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6명이며, 연령은 29-38세로 평균연령은 34.6세이다. 20대는 1명, 30-34세는 3명, 35-39세는 5명이었다. 학력은 고졸 1명, 초대졸 2명, 대졸 2명, 석사 이상은 4명이었다. 직업유형은 학생,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등으로 다양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는 4명, 따로 사는 경우는 5명이었다. 사례 5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번이라도 연애한 적이 있었으며 인터뷰 시점에서 연애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3명이었다.

연구도구

면담질문은 면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사례번호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부모와 동거여부	연애경험
1	남	38	자영업	박사수료	비동거	있음
2	남	37	영업직 회사원	전문대졸업	동거	있음
3	여	29	대학원생	석사과정	비동거	있음
4	남	36	학원 강사	학사졸업	비동거	있음
5	여	38	공무원	석사과정	비동거	없음
6	여	33	간호직 공무원	학사졸업	비동거	있음
7	여	35	보험회사 사무직	전문대졸업	동거	있음
8	여	32	심리상담사	석사졸업	동거	있음
9	여	34	홍보 기획자	고졸	동거	있음

해 결혼의향 및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문헌을 참조하여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 2명, 동료 상담전문가 3명의 자문을 통해 1차 수정과정을 거친 후 참여자 1명의 예비 면담에 사용되었다. 예비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과 합의과정을 거친 후 인터뷰 질문 목록을 재구성하였고, 참여자들을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보나 결과를 반영하여 질문목록에 추가 또는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내용의 핵심에 닿기 위해 사용된 공통된 질문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무엇입니까? (4)부모님 또는 주변사람들의 결혼생활은 어때 보였나요? (5)그것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영향을 미쳤나요? (6)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7)연애 경험은 결혼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요? (8)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신가요? (9)배우자나 결혼생활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10)결혼을 안 하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성 고려

본 연구의 면접자는 2명으로, 가족학 관련 박사 과정생이며 심리상담전문가인 제 1저자와 가족학 관련 박사 수료생이며 가족상담사인 제 2저자에 의해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자들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 질문지의 주요 질문과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 대해 면접자 간에 지속적인 토의과정을 가짐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해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면접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첫째,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동의과정

을 진행하였다. 참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1차 전화동의와 2차 면접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 인터뷰 과정에 있어서의 거절과 중단의 권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 과정 중 응답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떠오르는 감정으로 더 이상 진행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거절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실제 참여자들 중에는 특정 이야기(예: 부모의 이혼 등)에 응답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인터뷰는 중단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갔다. 셋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있어 참여자를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면접자가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면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반구조화 된 질문 목록에 대해서 참여자의 느낌과 생각이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넷째,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안내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을 하였고, 면담자료는 분석을 위해 축어록으로 작성됨을 알렸다. 인터뷰 내용은 인구학적 정보 외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다섯째, 인터뷰 참여 방법과 이점 등을 안내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에 따라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소요되었으며, 참여자가 더 이상 질문과 관련하여 대화의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인터뷰가 종료되었다. 면담장소는 사적인 면담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면접자의 상담실 또는 스테디룸에서 진행하였으며 면담 후에는 소정의 인터뷰 비용을 지급하였다. 여섯째, 인터뷰 이후 추가적인 질문과정과 결과에 대한 참여자 확인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추가적인 질문의 경우 전화를 통해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개별 검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연구자가 참여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및 절차

면담자료는 Hill, Thompson, & Nutt-Williams (1997)이 개발한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CQR은 귀납적인 방식으로 결과가 추론되는 과정으로 자료의 분석에 있어 복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인 합의과정을 걸쳐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의 평정자와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는 연구팀이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의 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3명의 평정자는 본 연구의 교신저자로서 심리학과 교수 1인과 면접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질적 연구의 경험이 많은 상담 관련 교수 1인이 감수자로 참여하였다. 평정자들은 관련 연구물들을 통해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을 숙지하고, 본 평정에 들어가기 전에 1개의 예비 면담 축어록을 함께 평정하며 평정 기준 합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 자료분석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축어록 분석 및 의미 있는 문장에 대한 합의 과정이다. 인터뷰 한 모든 사례별로 축어록을 작성하였고(최대한 비언어적 반응 및 관찰 내용을 함께 수록), 이에 대해 3명의 평정자들(이하 평정팀)이 개별적으로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있는 문장을 표시하였다. 평

평정팀이 함께 모여 일치와 불일치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합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영역 코딩에 대한 합의과정이다. 앞선 단계에서 합의된 의미 있는 문장들을 각 평정자가 유사한 문장으로 묶어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평정팀이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영역으로 코딩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중심개념 코딩에 대한 합의과정이다. 평정팀은 앞서 코딩한 영역에 대한 사실적 의미를 담은 원자료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살려서 간결하게 요약하고 이에 대해 합의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영역 코딩과 중심개념 코딩에 대한 감수과정이다. 평정팀의 분석 내용에 대해 감수자를 통해 원자료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는지 확인받고, 감수자의 피드백에 대해 평정팀이 다시 합의 과정을 거쳐 영역과 중심개념 코딩을 수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각 사례에 대한 교차분석 및 이에 대한 감수과정이다. 각 사례별로 영역과 중심개념 코딩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심내용별로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평정팀은 전체 사례에 대해 합의를 통해 범주를 도출하고, 이후 도출된 범주에 대해 전체 사례에 대한 빈도를 계산하였다.

모든 사례(9사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general) 범주는 ‘모든’으로, 50%이상(5-8사례) 나타나는 전형적인(typical) 범주는 ‘전형적’으로, 50% 미만(3-4사례)으로 나타나는 변동적인(variant) 범주는 ‘드문’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한 두 사례에서만 적용되는 범주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제외하였다. 교차 분석된 결과에 대해 감수자를 통해 확인 받고, 피드백 받은 내용을 토대로 평정팀이 최종적인 분석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결 과

미혼 남녀들의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9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2개의 영역, 10개의 하위영역 그리고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에 따른 하위영역 및 범주들을 빈도와 함께 표로 제시하고, 각 범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범주에 있어 ‘예외적’으로 분류된 것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동적인 범주에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나 범주 간에 반응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내용의 흐름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영역1. 결혼에 대한 생각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2개의 하위영역과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하위영역 1.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음’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일반적인 범주로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음’은 전형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대체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하위영역은 ‘결혼에

표 2. 결혼에 대한 생각

하위영역 및 범주	빈도(N=9)
1.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모든
주변사람(지인, 친구 등)의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전형적(8)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음	전형적(7)
2.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	전형적(8)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상태의 지속	전형적(5)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모든 참여자들의 응답들은 결혼에 대해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며 '죽쇄', '답답', '손해', '고생', '마이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고하였다.

“복불복이잖아요, ‘올가미’, ‘찍찍이 인형’, 그게 제 목에 이렇게 달라붙어있는 이미지에요. 무겁진 않지만 자꾸 신경 쓰이는... 고개를 절레절레하죠.” (사례 3)

“결혼은 죽쇄? 자녀에게 매이는 죽쇄 같은 느낌?” (사례 5)

“공평하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말 그대로 손해, 플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는 게 더 많은 느낌이에요.” (사례 6)

주변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사례 4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들은 주변사람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인식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만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사례 1, 사례 2)는 긍정적인 역할상이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여성 참여자 모두는 결혼한 주변 여성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힘들게 사는구나.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아 정말 참 본보기가 되게 잘산다가 한 명이 될까? 말까? 나머지 9명은 거의 아니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털려면 뭐 하러 살어. 그냥 혼자 살지.” (사례 2)

“그냥 결혼한 커플이 10커플이다. 그러면 다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하진 않아요. 다 십이십색의 삶을 살죠. ‘이게 되게 바람직하네’, ‘이게 되게 부정적이네’가 아니라 애는 이런 삶을 살고 애는 이런 삶도 사네. 하지만 이런 9가구에 비해서는 너희가 제일 완전하다. 정도의 생각이지 너희 너무 잘 산다 정말 결혼하고 싶네! 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사례 5)

“제 친구는 심지어 자살한 친구도 있었

어요. 애기가 백일 되던 날, 자살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이쁜 친구였는데도 육아.. 출산우울증, 출산우울증. 어렸거든요. 20대 중후반 때에 아이를 낳아서, 다른 친구들은 이쁘게 꾸미고 클럽 다니고 놀고 이러는데 자기는 애 막 낳아서 애한테 울인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자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맨날 살 언제 빠지지? 이런 얘기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백일에 장미꽃 사들고 집에 왔는데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례 9)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결혼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자들 중 사례 2, 사례 3, 사례 6, 사례 7, 사례 8은 20대 이전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집 살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 저는 괜찮는데 배우자가 그걸 이해해줄 수 있을까 경제력이 부담돼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자를 만족시킬 정도의 경제력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안 할 생각이니깐 그런 거에 고민한 적이 없는 거죠.” (사례 1)

“지금까지 생각은 ‘아~ 난 결혼 안 해. 이 얘기만 많이 했지... 결혼생활이라는 자체를 아예 상상은 안 해봤어요.” (사례 7)

“막상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이미 나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한 것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난 독신주의자구나!

(독신)주의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단 한 번도 없네요.” (사례 9)

하위영역 2.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상태가 지속’이라는 2개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두 범주 모두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다가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하위영역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라고 명명하였다.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

결혼 생활 혹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그 기대의 충족 정도에 대한 만족기준이 매우 높음을 나타냈다. ‘똑같이’, ‘완벽한’, ‘실질적’과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며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고하였다. 특이한 것은 높은 기대를 상대에게만 가지기보다 자신이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한 점이다.

“월급이 적어서... 조금의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도 있겠지만 큰 영향은 아니요. <중략> (결혼했을 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월 1000은 벌어야 그래도 억대 연봉은 돼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 2)

“안 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밖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남자, ‘결혼을 안 하려고 이상형을 저렇게 설정을 했는데’ 라고 밖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남자.” (사례 3)

“내 생각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댁을 커트할 정도의. ‘엄마 요즘은 안 그래~’ 하고 딱 잘라내고 쳐내고, 추석 때는 ‘애네 집 가야지’, ‘내가 먼저 비행기 표 끊었어’ 하고 쳐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6)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상태가 지속

‘만약 결혼을 하고 싶어진다면 혹은 결혼을 한다면’을 가정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아쉬웠던 점들을 채우고 싶은 바램이 담긴 기대들을 보고하였다. 그러한 기대 중에는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고, 행복한 가정이길 바라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냥 안 싸우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1)
 “부부가 항상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생

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례 7)

영역2. 비혼 동기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결과는 ‘부모에 대한 심리경험의 영향’,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의 영향’, ‘경험회피적 성향’, ‘개별성 추구 성향’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비혼 동기에 대해서는 크게 8개의 하위영역과 총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부모에 대한 심리경험의 영향>

참여자들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있어 원가족과의 경험이 미친 영향이 있을까? 사례 4를 제외하고 모든 참여자들은 부모의 결혼 생활 및 부부관계의 경험이 자신의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2개의 하위영역과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하위영역 1. 가부장적인 부모 역할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영향에 따라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의 역할을, 어머니는 돌봄과 정

표 3. 비혼 동기 - 부모에 대한 심리경험의 영향

하위영역 및 범주	빈도(N=9)
1. 가부장적인 부모 역할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아버지의 정서적 부재에 대한 원망 또는 아쉬움	전형적(8)
어머니의 다중적인 또는 과중한 역할에 대한 미안함(안쓰러움)과 짜증	전형적(6)
2.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여 결혼생활을 바라보지 못함	
부모의(양쪽 또는 어느 한쪽) 결혼생활을 불행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봄	전형적(8)
부모처럼 살고 싶지는 않음	전형적(8)
결혼에 있어 부모의 삶의 모습과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전형적(8)

서적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부모 역할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어머니들이 경제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참여자들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역할을 함께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사례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인 부모역할 또는 부모역할의 불균형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다. 응답 결과들을 수렴하였을 때, ‘아버지의 정서적 부재에 대한 원망 또는 아쉬움’, ‘어머니의 다중적인 또는 과중한 역할에 대한 미안함(안쓰러움)과 짜증’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두 범주 모두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하위영역은 ‘가부장적인 부모 역할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아버지의 정서적 부재에 대한 원망 또는 아쉬움

사례 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아버지와 소원하거나 갈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대체로 보고하였다. 아버지가 경제적 역할을 주로 맡으며 가정에 헌신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서적 부재에 대한 원망 또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면서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내가 보는 거의 유일한 남편 상이잖아요. 어~ 근데 정말 싫었어요. 저랑 아빠는 엄청 부딪혔거든요. (아버지랑)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사례 3)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제 생활에 거의

터치를 안 하셨고. 거의 관심이... 아니 거의 터치를 안 하셨고..” (사례 4)

“저는 어떻게 보면 아빠는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6)

어머니의 다중적인 또는 과중한 역할에 대한 미안함(안쓰러움)과 짜증

참여자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좀 더 가까운 관계임을 보고하였다. 사례 5를 제외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역할에 있어 어머니를 아버지와 비교하며 많은 역할을 하느라 힘들어 보였고, 자녀와 가정에 헌신하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보고하였다. 여성 참여자들은 대체로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혹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고생한 어머니의 삶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대체로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사례1과 사례2의 남성 참여자들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주거나 맞춰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하고 좀 중간... 가족들끼리 조율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거를 누군가 아무도 케어를 안 하는 걸 본거죠. 노인네 혼자서 당신 혼자서 그냥 이렇게 외롭게 간다라는 거가 느껴지니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니깐 뭐 그 정도의 노력은 제 생각에는 자식은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있어요.” (사례 1)

“엄마가 늘 안쓰러운 느낌 있잖아요. 엄마를 좀 즐기게 해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

었어요.” (사례 6)

“저희 시대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면서 어쨌든 집안일에다가 회사일에다가 저희 양육하는 거까지 부담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중략) 어머니한테 너무 몰리는 부담이 되게 커보여서...” (사례 8)

하위영역 2.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여 결혼 생활을 바라보지 못함

참여자들은 대체로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기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 간의 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끼거나 부모가 느끼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응답 결과들을 수렴하였을 때 ‘부모의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바라봄’,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 ‘결혼에 있어 부모의 삶의 모습과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이라는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세 범주 모두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여 결혼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명명하였다.

부모의(양쪽 또는 어느 한쪽) 결혼생활을 불행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봄

사례 4와 사례 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부모님 간의 관계가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로서 부모의 결혼생활을 봤을 때 불행해 보였음을 보고하였고, 왜 같이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들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예외적으로 사례 5는 부모님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결혼생

활이 행복해 보이기보다 안타깝게 느꼈음을 보고하였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걸 보니까 ‘뭐 하러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례 2)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렸을 때, 클 때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았으니까 (중략)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런걸 봐서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 행복해 하는 가정을 못 봐서...” (사례 7)

“저는 완전 엄마랑 아빠랑은 왜 결혼했지? 정말 안 맞는 사람인데. 외형적으로나 집안이나 모두 안 맞는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됐던 사람들이다. 아예 성격도 안 맞고 뭐든지 다 맞지 않는다. 그니까 모르는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 다 안 됐죠.” (사례 9)

부모처럼 살고 싶지는 않음

참여자들은 부모의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경험이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부모 자신의 생각 또는 평가와는 달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지 않거나, 따라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가장 처음에 봐서 결혼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부모잖아요? 제대로 못 사는 걸 보면 좋은 영향을 끼쳤을 리 없죠. 반대급부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랬던 거 같아요.” (사례 2)

“엄마 같은 사람이 되기 싫은 건 아닌데, 엄마처럼 살면 내가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 제 입장에선 희생이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위해서 하는 걸. 집안일 한다든가 하는 걸 불합리하다거나 나쁘게 생각은 안 하세요. 그냥 하는 일, 당연하게 하는 일이고. 근데 저는 왜? 싫은 거예요. 그게 되게...좀 그랬어요.” (사례 6)

“그 때 당시엔 엄마 아빠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 힘든 거구나. 자식 키우는 일은’ 그런 거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중략) 엄마 아빠는 자녀들한테 많이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내 생활 없이 자녀들 키우는 데 다 올인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앞이 캄캄한데...” (사례 7)

결혼에 있어 부모의 삶의 모습과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경우 가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개별적인 주체로서 선택하기보다는 원가족의 경험에서 비롯된 정서의 영향에 따라 선택하기 쉽다. 참여자들 중에는 부모의 기대를 지나치게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독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결을 떠나지 못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사례 3의 경우는 어머니와 자신이 유착되어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일단은 사람은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싫은 거고요. 그 대상은 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서 답을 못 찾는 거죠. 아무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례 1)

“(결혼에 대해) 여기 한군데만 바라보고, 나는 지금 이쪽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인데, 이쪽만 바라보고 이쪽을 같이 바라보는 능력은 안 되고 그니깐 둘 다 볼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우선이거든요. 지금 생활에서는 엄마, 아빠가 우선이에요. 근데 남편을 만나면 여기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래서 후회를 할 거 같아요. 그 남편하고의 삶이 안 좋고 애 키우고 그런 게 안 좋기 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소홀해지는 감정? 이런 게 너무 싫을 거 같아요.” (사례 7)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의 영향>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연애 대상 또는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 사례 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연애 경험이 있었으며, 연애 경험이 부재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특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2개의 하위 영역과 총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하위영역 3.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서 느끼는 어려움

사례 4와 사례 5는 연인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을 떠올리

며 응답하였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의 연인과의 관계 경험에 대해 응답하였다. 부분적으로는 친구, 친척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응답하기도 하였다. 응답결과를 수렴하였을 때, ‘갈등관계에 놓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움’,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의 요구에 형식적으로 따르거나 맞추기에 급급함’이라는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고, 모든 범주는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갈등관계에 놓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연인과의 갈등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무게감으로 인하여 갈등상황을 피하게 됨을 보고하였고, 일정한 노력을 하였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 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게 겪기 싫어요. 회피하고 싶고 남자 친구랑의 갈등... 그래서 저는 거의 싸움 적도 없어요.” (사례 3)

“저는 제가 문제인 경우엔 제가 참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글썄... 그냥 갈등이 생길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중략)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감정싸움이 되고 하다보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힘들어지잖아요.” (사례 7)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움

참여자들은 연인 또는 부모를 포함한 가까운 대상에게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음을 보고하였다.

“사적인 얘기를 잘 안 묻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혼자서 추스려 들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때 누구랑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치부로 보이는 걸 안 좋아해요.” (사례 1)

“내 모든 걸 보여주는 과정이 싫어요. 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런 거는, 그렇

표 4. 비혼 동기 -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의 영향

하위영역 및 범주	빈도(N=9)
3.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서 느끼는 어려움	
갈등관계에 놓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갈등처리의 어려움)	전형적(8)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기가 (주저되거나) 어려움	전형적(7)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 (또는 부담감을 느낌)	전형적(6)
상대방의 요구에 형식적으로 따르거나 맞추기에 급급함	전형적(5)
4. 장기적인 연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자신 없음	
연애경험에 있어서 반복되는 관계 갈등 패턴이 있음	전형적(8)
새로운 상대를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전형적(6)

계까지 하려면 뭔가 이 사람이 어쩐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재는 것도 너무 싫어요. (중략) 무작정 다 만나지는 않으니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싫고 불편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많이 편하지는 않으니까.” (사례 7)

“제가 부모님한테 제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는 거랑 비슷하게 여기에도 그런 부분을 저는 안했던 건데, 사실 연애 초기나 그런 때는... 보통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사람 성향에 따라서 대개 다르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되게 많이 어긋났던 거 같아요.” (사례 8)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

참여자 중 일부는 연애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결혼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귀찮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노력을 지속하는 데 부담이 커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약간 관계가 조금 깊어진다는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사례 2)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많은 대화와 많은 만남과 그리고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색한 시간들이 싫어요. (중략) 근데 남편을 만나면 그게 힘들 거 같아요. 아무래도 집착도 심해지고 스

토커 같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잘 살긴 하겠지만 그게 나를 우선시 해주니까 살 거 같은데, 그럼 상대방이 힘들지 않을까요?” (사례 7)

“제가 연애를 해봤을 때 별로 제가 누군가랑 이렇게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는 좋기는 한데, 굉장히 긴 시간을 같이 있고 이런 게 저는 되게 불편한 게 많더라구요. 약간 좀 숨 막히고.” (사례 8)

상대방의 요구에 형식적으로 따르거나 맞추기에 급급함

참여자 중 일부는 연애 또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기보다는 상대가 바라는 것을 맞추려고 애쓰거나 의무적으로 따라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자신이 지치게 되어 관계 맺기를 포기하게 되거나 상대가 이별통보를 하도록 둔다고 보고하였다.

“(연애할 때 상대를) 못 맞추지는 않아요. 저는 대신에 형식적이죠. 정말 좋아서 내가 잘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의지는 부족한 거예요. 약간 해가지고 당연히 여자니까 나랑 사귀고 있으니까 잘해줘야지, 이 정도쯤은 해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사례 2)

하위영역 4. 장기적인 연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자신 없음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를 수렴하였을 때, ‘연애경험에 있어서 반복되는 관계 갈등 패턴이 있음’과 ‘새로운 상대를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두 범주 모두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연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자신 없음'으로 명명하였다.

연애경험에 있어서 반복되는 관계 갈등 패턴이 있음

참여자들은 연애 과정에 있어 상대가 달라져도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관계 갈등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자신들이 연애 또는 결혼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만나기 힘들 거라는 생각과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히스테릭한 사람을 싫어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을 싫어해서. 이성이 첨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막 쪼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식게 되고... (중략) 그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난과 대화를 끊는 사람이 되면 이제 안 하죠.” (사례 1)

“막판에 가면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다.” 뭐 이런 얘기라던지, “왜 그렇게 바쁘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더 이게 싫으니까는 더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굳이 왜 만나지 싶어서 그만 만나게 되고...” (사례 8)

“맨날 바빠? 바빠?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헤어졌거든요. ‘일하는데 왜 이렇게 만나자고 해?’ 이런 식으로 (중략) 전 남자들한테 바쁘면 소홀하게 행동해서 차일 때도 있었고... “나 바쁘니까 헤어져.” 라고 한 적도 있었고...” (사례 9)

새로운 상대를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참여자 중 일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연애 경험이 좀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던지, 자신의 연애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는지에 대해 기대가 별로 없다고 보고하였다.

“(여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다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거를 내려놓고, 떨어트려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만난다면 그건 (상대가) 남자죠. (중략) 싸우게 될 거예요. 분명히 결과가 안 좋을 걸 뻔히 알아요.” (사례 2)

“저는 남편도 자식 같은 이미지여서 의존할 것 같고... 그래서 딱히 그런 욕을 더 달고 싶지 않아요.” (사례 3)

<경험 회피적 성향>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어떠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일까? 기피의 결과일까? 경험 회피적 특성과 관련하여 2개의 하위영역과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하위영역 5. 예견된 실패를 피하고자 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잘못 될까봐’, ‘후회할까봐’ 등 부정적인 예견을 하는 편이었으며, ‘자신이 결혼에 어울리지 않는다’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응답결과들을 수렴하였을 때, ‘자신의 기질 또는 성격적 측면이 결혼생활에 어울리지 않음’,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결혼생활을 실패할까봐 두려움’이라는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신의 기질 또는 성격적 측면이 결혼생활에 어울리지 않음’과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움’은 일반적인 범주로, ‘결혼생활을 실패할까봐 두려움’은 전형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예견된 실패를 피하고자 함’으로 명명하였다.

자신의 기질 또는 성격적 측면이 결혼생활에 어울리지 않음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보고하였고, 자신의 그러한 특성이 결혼 생활이나 연애함에 있어 어려움으로 나타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혼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기 즐겨하지 않는 성향이에요.” (사례 4)

“뭔가 변화를 주면 좀 두려워요. 내 생활이 지금 많이 행복한데, 여기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바꾸면 모험인거잖아요? 그 모험심리가 저는 없거든요. (중략) 나는 그런 거는 정말 안 해보고, 그런 거는 정말 두려워요. 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가는 동안 많이 두려울 거 같아요.” (사례 7)

“3정도를 쓰고 오면은 저는 5정도를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조금 되는 거 같아요. 아니면은 계속 에너지만 쓰다 보면은 언젠간 이게 번아웃이 되는 시기가 오더라구요.” (사례 8)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모든 참여자들은 결혼하기 싫은 이유와 관련하여 대체로 누군가를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것이 싫다고 하였다. 여성 참여자들은

표 5. 비혼 동기 - 경험 회피적 성향

하위영역 및 범주	빈도(N=9)
5. 예견된 실패를 피하고자 함	
자신의 기질 또는 성격적 측면이 결혼생활에 어울리지 않음	모든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모든
결혼생활을 실패(또는 후회) 할까봐 두려움	전형적(8)
6. 예견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차단하고자 함	
관계적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에 대한 거부	모든
결혼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관계를 끊게 되거나 연애마저 포기함	모든

이와 함께 자녀, 배우자, 원가족을 돌보는 것,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보고하였다.

“요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만나서 산다는 자체가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중략) 뭐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어오고 약간 그런 일들이 부담스러워서...” (사례 2)

“남편 의견에도 많이 맞춰야 하는데, 근데 일단 직업이 없으면 너무 남편 의견에 맞출 것 같고, 내가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사회 풍습 상 가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게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책임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하는... 같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는 도와주는 거고 나는 책임이고 이런 게 싫어요.” (사례 6)

“딩크로 사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는 있는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한 3~4년 지나고 나면은 갖게 되더라구요. 주로 뭐 압박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편 배우자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이유는 다르기는 한데, 결혼을 하면은 대개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출산이다 보니까는. 저는 그게 싫은 것도 커서.” (사례 8)

결혼생활을 실패(또는 후회) 할까봐 두려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에서 자신, 가족,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고, 내가 예상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들을 보고하였다.

“사실 (완벽한 남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뽑기를 잘 할 수 있는 확신이 없고 지금도 그런 남자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심지어 나타나도 이게 50년 동안 유지 되겠냐라는 확실성이 나한테는 없다.” (사례 3)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요즘은 우리나라 법 제도도 바뀌어서 이혼도 아무렇지 않고 결혼한 와중에도 김민희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과연 그게 행복할지도 모르겠고...” (사례 6)

“남자를 잘못 만난 후회가 아니라 그 결혼에 대한 후회라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결혼을 해서 후회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남자와 자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해서 후회를 할 거 같아요. 그냥, 그 결혼을 했다는 그 자체에. 나중에 ‘아, 내가 왜 결혼을 했지?’ 이런...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데,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사례 7)

하위영역 6. 예견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차단하고자 함

참여자들은 연인과의 관계적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에 대해 피하고 싶어 했으며, 결혼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연인과의 관계를 끊게 되거나 연애마저 포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들을 수렴하

였을 때, ‘관계적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에 대한 거부’와 ‘결혼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관계를 끊게 되거나 연애마저 포기함’이라는 2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범주 모두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예견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차단하고자 함’으로 명명하였다.

관계적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에 대한 거부

모든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을 예견하였고 이를 겪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와 저와 와이프와 이렇게 있잖아요. 그 3개만 해도 답답한데 거기에 뭐 형제들도 끼고 장인, 장모가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다중적인 부담감을 갖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례 1)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 만날 때에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약간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안 만나면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우니까요.” (사례 2)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이런 경우는 숨이 막히더라구요. 저는 힘들었어요 되게. 그거를 다 어쨌든 사실은 그 관계를 유지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니까는

힘들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되나?” (사례 8)

결혼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관계를 끊게 되거나 연애마저 포기함

모든 참여자들은 결혼 대상을 만나거나 장기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 먼저 관계를 멀리하거나 끊어내기도 하고, 이성과의 만남 자체를 포기하기도 함을 보고하였다.

“저는 사실은 결혼에 뜻이 없는데 그냥 한번 만나볼까? 라는 게 서로 간에 사실 신뢰를 해칠 수도 있고 그분은 사실 급하게 보실텐데 하는 거 때문에 거절을 하면서 “나는 결혼에 뜻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 했던 거죠, 원천봉쇄를 했다고 봐야 겠죠.” (사례 5)

“결혼하자고 하면 그 다음날 헤어졌어요. 진짜로...”(사례 6)

“뭐 다들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할 거다. 근데 나는 아예 그 사람을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누가 주위에서 연애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왜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남자를 만나서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안 만나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 그래갖고 아예 연애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하거든요.” (사례 7)

<개별성 추구 성향>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얻고 있는 것 혹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개별성 추구 성향과 관련하여 2개의 하

위영역과 총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하위영역 7.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더 중요시 함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를 수렴하였을 때, ‘혼자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함’과 ‘누군가를 위한 희생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음’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범주 모두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더 중요시 함’으로 명명하였다.

혼자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하거나 포기하기 어려움

참여자들은 대체로 현재생활의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심리적 평온감을 갖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현재 혼자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의 만족감을 깨트리면서까지 결혼을 고려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냈다.

“나중에 돼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나중에든 내가 누구한테 의지거나 그럴 일

없이 주도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결혼은 안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2)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요. 굳이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굴곡이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제 인생에.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있어서... (중략) 결혼을 해도 지금만큼의 행복이라면, 나는 지금 ‘이대로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사례 7)

누군가를 위한 희생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음

참여자들은 대체로 인생에 있어 개별적인 자기를 희생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음을 보고하였고, 결혼생활은 나를 위한 삶을 지켜낼 수 없다 생각하여 비혼을 고려한다고 보고하였다.

“결혼하게 되면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나 혼자의 주체는 아닌 거잖아요.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중략) 결혼보다는 삶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구나.” (사례 6)

표 6. 비혼 동기 - 개별성 추구 성향

하위영역 및 범주	빈도(N=9)
7.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더 중요시 함	
혼자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함(또는 포기하기 어려움)	전형적(7)
누군가를 위한 희생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음	전형적(5)
8.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함	
전형적인 가족형태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얻기 어려움	전형적(5)
가족형성보다 사회적 성취가 더 중요함	드문(3)

“저는 저를 위해서 살고 싶지 그냥 삶의 방향이 다른 거라는 건 알긴 한데 저는 그래요. 결혼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부담들이 제 눈에는 더 커 보이고, 저는 그런 부담들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사례 8)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의 100퍼센트를 나 자신에게 쏟아 붓고 있었다면, 거기서 50%를 남편에게 쏟아 붓게 된다던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에게 80%, 남편에게 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한테는 요만큼 남아 있다가 그것도 나중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사례 9)

하위영역 8.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함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를 수렴하였을 때, ‘전형적인 가족형태에서 정서적 만족을 얻기 어려움’과 ‘가족형성보다 사회적 성취가 더 중요함’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전형적인 가족형태에서 정서적 만족을 얻기 어려움’은 전형적인 범주, ‘가족형성보다 사회적 성취가 더 중요함’은 변동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함’으로 명명하였다.

전형적인 가족형태에서 정서적 만족을 얻기 어려움

참여자 중 일부는 전통적 혈연중심의 가족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적 가족 또는 공동체의 형태를 취해보고 싶은 바램에 대해 보고하였다. 정서적 의존 또는 연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핵심적 기능

인 정서적 유대 및 애정을 다른 형태를 통해 얻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서 입양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한 19살짜리. 그래서 그 친구랑 저는 그냥 누군가 한번은 살면서 큰 도움이 되 고자 하는데 자식에 대한 미련을 없는데 입양에 대한 생각은 있거든요.” (사례 1)

“점점 더 어쨌든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고, 제가 나이를 한 5, 60대 먹었을 때는 다른 방향의 하우스메이트라던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례 8)

가족형성보다 사회적 성취가 더 중요함

참여자 중 일부 여성들은 결혼하는 것 보다 일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행복을 위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고하였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가정보다는 그래도 직장생활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쪽에 비중이 더 커진 거죠. (중략) 학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결혼이 나중에 내가 노후가 돼서 내가 되게 후회스러워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사례 5)

“어렸을 때도 저는 꾸준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져가지고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을 하고 그런 쪽을 좋아하진 않았었던 거 같아요.” (사례 8)

논 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결혼 의향이 없다고 밝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그 선택에서 영향을 미친 심리적 특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혼할 필요를 모르겠어서’와 같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주요한 이유에 대한 단편적인 응답에서 나아가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관련된 경험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혼을 결심한 남녀 9명의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합리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2개의 영역, 10개의 하위영역 그리고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있어 결혼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편이었는데 이는 결혼에 대한 거부감 또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실제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에 있어 배우자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마땅한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와 같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한 양적 연구들

(김승권 외, 2012; 이삼식 외, 2015;)과 연계되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관련된 부모와의 심리적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가부장적인 역할수행에 대해 자녀로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이 나타났다. 양명석(1996)은 가부장제의 고정된 성역할 또는 부모 역할의 불균형은 부부관계나 역할 수행에서 불만족을 유발하고 부부갈등과 이어진다는 하였다. 부모의 가부장적인 역할 수행은 남성에게는 가정 내 소외감, 여성들에게는 지나친 희생에 대한 부담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남길 수 있다. 그러한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에게로 전수되거나, 자녀의 결혼이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의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바라보았는데, 이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한 경우 자녀들은 이를 일반적 결혼생활로 정형화하거나, 자신의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결혼을 회피하게 된다는 조호리(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Chuuingham와 Thornton(2006)은 자녀가 관찰한 부모관계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가에 따라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에서 나타난 결과 중 주목할 점은 참여자들의 다수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부모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 한 것인데, 이는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자녀로서 가지는 죄책감 또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관련된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연인과는 반복되는 관계갈등 패턴으로 인해 배우자나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음이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감정과 두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결혼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기피와 관련된다는 반석우(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경선, 이지영과 장진이(2013)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억제함으로 인하여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사귀고 있는 사람과도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관련한 부모와의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음에 대한 결과는 대인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의 두려움과 연결시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보웬의 가족치료적 관점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상실한 채 정서적으로 융합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적 측면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경험 회피적 성향과 개별성 추구 성향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결혼생활에 대한 실패를 예견하였고 그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예상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이를 경험 회피적 성향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걱정과 정서에 대한 두려움, 경험적 회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한 Buhr와 Dugas(2008), 오영아(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관계성의 욕구가 좌절되었거나, 좌절을 예상함에 따라 어떤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려는 경험적 회피가 발생하여 오히려 회피하고자 했던 생각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조영미와 이희경(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고, 혼자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는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를 개별성 추구 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앞서 확인한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결혼생활을 바라보지 못함,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관계적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에 대한 거부 등의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건강한 관계의 기초인 개별성과 연합성의 조화에 대한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개별성과 연합성 사이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관계적 경험 속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개별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Michael(2009)은 인간관계는 개별성과 연합성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관계이며, 서로가 친밀하기 원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친밀함과 거리감을

조화롭게 이룬다면 안정된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참여자들의 비혼 선택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회피적 성향과 개별성 추구 성향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Stein(1981)의 비혼 요인에 있어 제약에 얽매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소극적 비혼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보다 기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미혼남녀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결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볼 때, 미혼 남녀의 원가족 내에서 부모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모 각자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만족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부모처럼 살고 싶음'의 기대가 생길 때 자녀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입각해서 원하는 결혼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교육, 예비 부부교육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결혼의 의미와 이성교제에 있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예방적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심리적 특성인 경험에 대한 회피 시도는 연애 상대를 만들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으므로써 예상되는 두려움과 같은 불편한 감정들을 피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도 피하게 되어 개인적, 관계

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을 심리적 특성과 연계하여 기존의 양적 연구와 다르게 접근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질적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학술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집 과정에서 사례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함에 따른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혼 남녀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탐색적 연구로서 일부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의 수가 9명으로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적은 편이다. 또한 남성이 3명, 여성이 6명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를 표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주목할 점은 당장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은 발견하기 쉬우나 장기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연구대상 및 방법을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들이 달라짐으로써 다른 특성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해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혼의 유형에 있어 소극적 요인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바, 적극적 비혼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대해 차후의 연구로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10). 자발적 비혼 여성에 대한 자전적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경기웅, 장성숙 (2015).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차원적인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2), 55-66.
- 고선강, 어성연 (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고재원 (2011). 고학력 남성 미혼자들이 결혼을 늦추는 심리사회적인 요인 질적 탐색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 (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요인과 실태 조사. *문명연지*, 14, 121-157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체계(BAS/BIS)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19-37.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90.
- 김승권, 박종서, 김유경, 김연우, 최영준, 손창균, 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27.
- 김예리 (2009).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관련 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이지은 (2015).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345-358.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경희대학교 신진연구*. 1-24.
- 김현실 (2010). Bridge33+세대의 애착 형성 및 자기분화 향상을 위한 기독교 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선보영, 김상돈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77.
- 나보영, 정혜정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자기분화 및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55-168.
- 남정미 (2006).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스트레스 수준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미화, 이인수 (2011). 비혼 여성의 가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1), 77-101.
- 류연희 (2007). 고학력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나타난 주체성 모순의 양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2).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반석우 (2014). 대학생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영수 (2002). 부모의 부부간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천안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경미 (2003). 비혼(非婚) 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숙 (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가*

- 정학희지, 34(2), 167-181.
- 오영아 (200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아름, 박정윤 (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유홍준, 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윤병수 (2007). 접근성향과 회피성향에 따른 정서자극에 대한 평가와 정신생리적 반응 차이.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이경선, 이지영, 장진이 (2013).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91-106.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원, 26(2), 95-140.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44.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 (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12.
- 이삼식, 최효진 (2010). 생애주기변화와 출산행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 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22.
- 이선미, 박기환 (2013). 행동활성화/억제체계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3), 407-422.
- 이정은, 조용래 (2007). 걱정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일반화된 불안증상 간의 관계에서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939-961.
- 이지은 (1996). 청년기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상호작용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이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창순 (2012). 한국사회 비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과학연구, 38(3), 49-71.
- 임선영, 박주희 (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장현숙 (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85-195.
- 정도현 (2015). 부모와 동거중인 40대 미혼여성의 결혼지연과 정서적 독립에 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 최지현 (2010).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 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여성, 15(3), 331-353.
- 조명현 (2009). 접근동기와 회피동기에 따른 자기중심성 집단의 성격적, 적응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변수정 (2014). 한국과 일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Issue & Focus, 267, 1-8.

- 조영미, 이희경 (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27-1245.
- 조용래, 채숙희, 최연숙 (2009). 우울과 불안증상 및 안녕감에서 경험 회피와 마음챙김 주의 자각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135-1154.
- 조은수 (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호리 (2009).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부모간의 갈등과 자기분화가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새은, 옥선화 (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 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53-73.
- 하보란 (2012).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정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경험회피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재홍 (2008). 사회불안 발생과정에 자기효능감과 체험회피가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73-1189.
- 홍은영 (2011). 미혼성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uhr, K., & Dugas, M. J. (2008). Fear of emotions, experiential avoidance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worry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Manuscript submitted to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 Chuuingham, M., Thornton, A. (2006).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adult childr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its alternatives: main and moderating effects. *Demography*, 43(4), 659-672.
- Forsyth, J. P., & Eifert, G. H. (2005). *The mindfulness & acceptance workbook for anxiety: A guide to breaking free from anxiety, phobia & worry using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Gray, J. A. (1990).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 269-288.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New York: Guilford.
- Hill, C. E., Thompson, B. J., & Nutt-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Michael E. Kerr & Murray Bowen (1988). *Family Evaluation*, Norton.
- Martin Rovers (2004). Family of Origin Theory, Attachment Theory and the Genogram: Developing a New Assessment Paradigm for Couple Therapy, *Journal of Couple &*

- Relationship Therapy*, 3(4): 43-63.
- M. E. Kerr, M. Bowen. (2010).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Family Education]. 남순현, 전형주, 황영훈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년에 출판)
- Michael. Nichols. (2009).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송성자, 정문자, 김영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9년에 출판)
- Pickering, A. D., Corr, P. J., & Gray, J. A. (1999). Interactions and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A theoretical analysis of Rusting and Lars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357-365.
- Stein, P. J. (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 in Social Context*. New York: st. Martin's Press.
- 논문 투고일 : 2017. 02. 09
1 차 심사일 : 2017. 02. 13
게재 확정일 : 2017. 04. 18

A Qualitative Study for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ffecting Never married Choice

Jeongha Lee

Jeongyoon Park

Nana Yoo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ffecting never married men and women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 of in-depth interviews about the idea of marriage and the reason for never married choice.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9 men and women aged mid-20s to late 30s who said to choose never married life for a long time, and then the content of interview was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 of in-depth interview, it was derived into 2 areas, 10 sub-areas, and 25 catego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research participants negatively recognized the marriage and had unrealistic expectation rather than no expectation for marriage. Secondly,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elt negative feelings about their parents' patriarchal role, and they did not want to live like their parents. They also reported that they did not see their marriag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Thirdly,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elt difficulty in forming relationships with intimate person, and it became more difficult to have expectations about spouses and marriage due to repeated relationship conflict patterns. Fourthly,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psychological asp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seeking for individuality in terms of never married choice.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predicted the failure of married life, and reported that they were trying to prevent uncomfortable feelings and sufferings by choosing never married life. Also they reported that individuality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connection with others(togetherness) and individual valu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collective value. Participants in this study showed negative evaluation or had negative influences on the marriage life of parents and acquaintances. This is more likely to be a passive factor in never married choice, so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factors in never married choice.

Key words : never married men and women, marriage intenti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QR